

- 환영: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Home!
- 창립110주년 기념사역: 구약성경필사 (4월까지 제출) / 파라과이 파라나지역 선교비전트립 (10월경 예정)
- 남선교회 주관 리빙 트러스트(유산상속) 세미나: 오늘 친교 후 분당 / 강사: 김준수 변호사 /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불라시니어 삼계탕 나눔사역(디렉터 오금희 장로): 오늘 점심식사 및 딜리버리 / 준비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 신령상직제 공천위원회 3차 모임: 오는 토요일(27일) 오후1시15분 소망회실 / 12시30분 점심식사 (친교실)
- 속회모임 안내: 감사속(25일), 샬롬속(25일), 와보라속(26일), 기쁨속(26일), 온유속(27일)
- 주차장 펜스교체공사 넷째주간: 게이트 고정, 주차장 현관 슬로프 공사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됩니다. 헬퍼로, 식사로 섬겨 주신 손길에 늘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 1-4월 선교후원: 연회, 프레즈노KUMC, Growing Church Conference, Christian Times, SF 메스터코랄, 산타마리아 벨렐 KUMC, 크레센타벨리KUMC
- 주중예배: 4월 한달 수요일예배는 개인묵상으로 대신합니다. / 토요 아침예배 (4월27일, 오전7시30분)
- 주중 특별모임: 북클럽 (격주 토 오전8시, 2층 도서실) / 장구팀 (매주 금 오전10시, 2층) / 미술반 (매주일 친교후 2층)
- 주일/한국학교: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10시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친교 후 2층에서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 청년부: 상반기 MT (오는 금/토, 26/27일 1박2일, 모스 비치), 예배 후 청년부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청년부가 주일 자체예배(2층 청년부실)를 드립니다.
- 지역소식: 미서부 CBMC(기독교실업인회) 샌프란시스코대회 (오는 목-토/25-27일, SF공항 Embassy) 문의: 조종애 선교사
- 주일친교: 오늘: 불라삼계탕 나눔사역 / 다음주일: 남승연 권사 / 친교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뒷정리도 부탁드립니다.
- 교우소식: 연락하신 교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한 기도: 박태순 집사(26일/금/수술), 전화순 권사, 강일성 권사, 남에스더 자매(퇴원/재활) / 한국행: 이종혁/이연진 권사

2024년 표어와 목표

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 목표: 한 영혼 전도하기

2024년 기도제목과 성구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2)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 1905년에 태동하고 1914년에 창립하여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세상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모임	시간	Oakland Sunday School	
주일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Children	[Worship] Sun 10am
수요찬양예배	오전 10시(대면/영상)		[Bible Study] Sun 11am
토요아침예배	오전7시반(대면/영상)	Youth	
주일아침말씀방	-	Young Adults	[Gathering] After Worship
주일중보기도모임	-		

[오클랜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okschool.org / 종강 5월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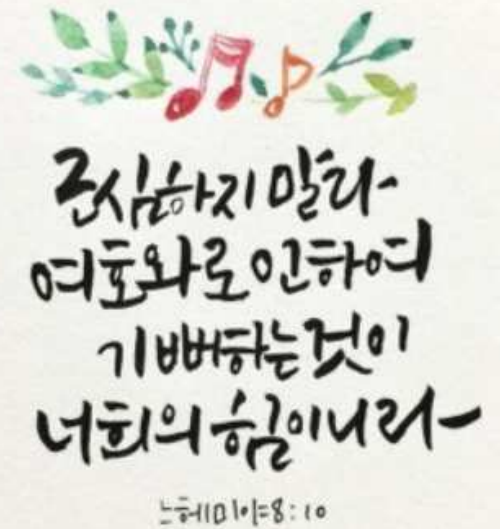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현섭
 [Lead Pastor] Hyun Jung
 hsjungusa@hotmail.com
 [전도사] 민예인
 [교육간사] 한선욱
 [행정간사] 김하영
 [지휘자] 최희숙
 [반주자] 공은선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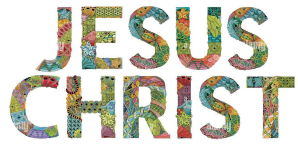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 Stree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www.newokumc.org

The Church overflowing with Grace and Peace



주 일 예 배

2024년 4월 21일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인도 정현섭 목사 오전 10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경배와 찬양 Worship Praise / 민예인 전도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 사도신경

찬 송 Hymn /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회 중 기 도 Prayer / 강순자 권사

찬양대 특송 Choir Anthem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말 씬 봉 독 Bible Reading / 느헤미야 13장 29~31절

설 교 Sermon / 정현섭 목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새가족 환영과 알림 Announcement /

❖ 봉헌 및 찬송 Offering, Hymn /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 축 도 Benediction /

❖ 이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4월 예배섬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일	주일회중기도	주중예배	3/4월 예배섬김
7	담임목사/성찬예식	수요오전예배 오전10시 *****	[안내위원] 곽송자 권사 정정자 권사 남승연 권사
14	최인택 장로		
21	강순자 권사	토요일아침예배 오전7시30분	[봉헌위원] 양경혜 권사
28	장유익 권사		

[수요/토요일예배: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4월 수요예배는 개인 묵상으로. / 토(4/27) 오전7시30분

Welcome!

우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자	윤연미 집사	전상숙 권사
	이흥복 집사	정지선 장로
	박은미 집사	-

향기로운 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4월14일 / 합계: \$2,775.00]

[감사헌금] 송의섭 윤연미 장유익(범사) 전선재 정신애 조종애(생일)

[주정/월정/주일헌금] 강석훈/제나 김정필 김충식/현숙 김태원

박혜숙 윤행자 이강은 이선희 이옥배 이진희/명숙 전병련 정기호

정민섭 정신애 정지선 정현섭 최희숙 한건석

[지정헌금] 오금희(선교) 임은자(선교) 전병련(공사)

지난 주일/주중예배 참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예배	81명	토요일아침예배	18명

속 회	속장/인도자	모임 보고 / 모임 안내	선교후원
믿음 사랑속	윤숙자/오금희	[보고] 3/15/금/교회/4명	나눔의동산 파라과이1
감사	이문자/황원규	[안내] 4/25/목/2시/황원규 권사택	나눔카페
샬롬	정정자/정지선	[안내] 4/25/목/2시/김충식 집사택	예수사랑
와보라	손승리/손수락	[안내] 4/26/금/11시반/교회(최정연권사)	멕시코 키르키즈스탄
온유	송재현/곽태길	[안내] 4/27/토/5시/강석훈 권사택	파라과이2
기쁨	양경혜/최인택	[안내] 4/26/금/4시/양경혜 권사택	가나안교회
주향한	현순정/이종혁	[보고] 3/25/월/현수남 권사택/8명	카자흐스탄
청장년 청년	정지현/민예인	[보고] 4/12/금/6명/민예인 전도사택	기아대책

Good New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느헤미야의 중격마 신앙

먼저, 성벽 건축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신 그 일을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님을 섬기는데도, 주님은 느헤미야를 별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용돌이와 환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자기부인과 항복을 받아내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대사를 이루었다고 자고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아무 것도 아니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유혹에 종종 빠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식이 끼면 안되고, 물질이 끼면 안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간관계가 끼면 안 될 것입니다.

올림픽 때, 레슬링 경기를 보면 선수가 반칙을 해서 뼈때루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뼈때루 벌칙을 받는 선수는, 심판의 수신호와 함께 매트에 바짝 자기 몸을 밀착시킵니다. 그렇게 버티면 선수는 거의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뼈때루 자세처럼 바짝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집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만들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격마'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느헤미야의 꺾이지 않는 신앙을 닦기 원하고, 또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 어제 토요일아침예배 느헤미야 6장 묵상 중에서

[기쁨의 언덕으로]	22일(월) 에스더 1장	23일(화) 에스더 2장
매일성경통독과 묵상	24일(수) 에스더 3장	25일(목) 에스더 4장
4월: 에스더	26일(금) 에스더 5장	27일(토) 에스더 6장